

光州日뢖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56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69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음력 6월 21일 **kwangju.co.kr**

'광주 자매' 안산·안세영 오늘 일 낸다



29일 일본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 32강전에서 안산이 과녁을 향해 활을 쏘고 있다. /연합뉴스



안세영이 29일 일본 도쿄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16강전에서 부사난 옹밤룽판(태국)의 공격을 받아 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출신 '신궁'과 '셔틀콕 미래'가 나란히 위업에 도전한다.

도쿄올림픽 양궁 2관왕에 오른 안산(20·광주여대)은 내친 김에 개인전 금메달까지 3관왕에 도전 하고 배드민턴 안세영(19·삼성생

명)은 25년 동안 맥이 끊긴 단식에서 메달을 노린다. 안산과 안세영은 각각 문산초, 풍암초등학교를졸업했으며 광주 체육중·고 선·후배 사이다.

안산(20·광주여대)은 29일 도쿄의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2회전(32강)에서 아니마르셀리 두스산투 스(브라질)를 7-1로 제압했다.

〈관련 기사 18, 19면〉

안산은 30일 오전 일본으로 귀화한 하야카와 렌 (한국명 엄혜련)과 16강에서 맞붙는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혼성전과 여자 단체전 금메달로 이미 2관왕에 오른 안산은 개인전 우승을 통해 한국 양궁사 최초의 단일 대회 3관왕에 도전

양궁 안산, 개인전 16강 진출 … 한국 사상 첫 3관왕 도전 배드민턴 안세영, 최강 천위페이와 8강전서 운명의 한 판

한다.

안산은 도쿄올림픽 여자 개인 예선 랭킹라운드 (순위결정전)에서 72발 합계 680점을 쏘며 올림픽 기록을 세우며 64명의 출전선수 중 1위로 본선에 올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도쿄 올림픽 스타로 떠오른 안산은 광주여대 선배인 기보배(2012 런던올림픽 2관왕), 최미선(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 계보를 이어 광주 양궁의 저력을 재확인 한 바 있다.

안산의 광주체고 1년 후배 안세영도 올림픽 새 역 사쓰기에 나선다. 안세영은 2017년 광주체육중 3학 년 때 성인 선수들을 제치고 한국배드민턴 사상 최 초로 대표팀에 발탁돼 천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가 도쿄에서 메달을 따내면 대한민국 올림픽역사에 이름을 새기게 된다. 현재 19세인 그는 20세에 올림픽 메달을 따낸 방수현·라경민·이용대의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최연소이자 사상 첫 10대 메달리스트가 된다. 방수현 이래 25년 단식 노메달의불명예도 씻는다.

안세영은 29일 도쿄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 츠플라자에서 열린 대회 배드민턴 여자단식 16강 전에서 세계랭킹 13위 부사난 옹밤룽판(태국)을 2 -0으로 꺾고 8강에 올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8 강전은 30일 오전 9시에 열린다.

안세영은 조별리그에서 세계랭킹 67위 클라라 아수르멘디(스페인)와 세계랭킹 89위 도르카스아 조크 아데소칸(나이지리아)을 연달아 2-0으로 제압, 조 1위로 16강에 오르는 등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안세영은 내친 김에 이번 올림픽에서주인공이 되겠다는 각오다. 8강에서 만나는 천위페이(중국)는 안세영의 천적이다. 세계랭킹 8위인안산은 천위페이(세계랭킹 2위)와 4번 맞붙어모두 졌기 때문에 이번엔 설욕전이다.

안세영은 '강자 킬러'로 통한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 카톨리나 마린(스페인), 2019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푸살라 신두(인도), 지난해세계랭킹 1위를 달렸던 타이쯔잉(대만)을 꺾은 바있다. 천위페이가 결코 넘지 못할 산은 아니다.

8강 결전을 앞 둔 안세영은 천위페이에 대해 "아 직 이겨본 적이 없어서 이기고 싶다"며 "오늘처럼만 안 하면 될 것 같다. 오늘 실수했던 플레이를 안 한 다면 충분히 상대를 놀라게 하는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36℃ 불볕더위

폭염・열대야 계속될 듯

광주·전남지역에 3주째 폭염 특보가 이 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와 화순 등 전남 10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고, 목포와 여수 등 12개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주의보는 33도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된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9일부터 폭염 주의보와 경보를 오가며 21일째 불볕더위 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 일부지역 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곡성 옥과 35.6도, 광주 공항·나주 다도 35.5도, 담양 34.8도, 순천 황전 34.7도 등을 보였다. 습도를 반영한 체감기온은 담양 36.3도, 영광 염산 35.7도, 광주 공항 35.6도 등 수은주보다 $1\sim2$ 도 더 올랐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이날까지 광주 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광 주 18명·전남 61명 등 79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전남지역 축산 분야 피해도 커지면서, 올 여름 들어 첫 신고가 들어온 이달 20일 부터 전날까지 도내 농가 93곳에서 가축 3만2783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 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겠고, 도심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도 있 겠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장 무더 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내일부터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영업중단

코로나 확산 고강도 선제조치 8월 8일까지 집합금지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명을 넘어서는 등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광주지역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이 오는 31일 자정부터 전면 중단된다. 〈관련기사 2면〉

지난달 27일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한 지 한 달만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됨에 따라 광주시가 고강도 선제 조치에 나 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31일 자정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주일간 (7월18일~24일) 지역 감염 확진자 수가 1일 평균 14.1명이었으나, 25일 이후 확진자가 1일 평균 25.7명 수준으로 2배 가까 이 증가했다"면서 "지금 결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인 유흥 6종은 유흥·단란·감 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이다. 대상 업소수는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1081 곳, 유흥업소 607곳, 단란주점 420곳, 나이트클럽 17곳, 콜라텍 13곳, 감성주점 1곳 등이다. 다만, 최 근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한 호프집은 '일반음식 점'이라는 이유로 금지 업종에서 제외됐다.

광주시는 또 젊은층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같은 기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 러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특히 호프집을 포함한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위반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경고없이 10일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시설 영업자와 이용자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방역수칙이 강화될 수록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동체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자영업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코로나에… 폭염에 … 쌓이는 재활용품

북스 - '한국의 단청' '스포츠의 탄생' ▶14·15면

반려견이 특이한 행동을 하면?

▶22면

▶6면



